

# 18명의 산타를 찾아라

### 내달 22일~24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산타 축제' 개최

임실군의 겨울철 대표축제로 급부상한 산타축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개최된다.

임실군은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2018 임실산타축제'를 열고, 가족 연인과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경연대회와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임실군의 겨울철 대표축제인 산타축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개최된다

(재)임실치즈테마파크가 주최·주관하는 산타축제는 '18명의 산타를 찾아라'와 '산타경연대회! 내가산타야!' 등 경연행사와 산타플레이시프 퍼레이드 등 다양한 공연 및 이벤트를 선사한다.

대표적인 이색프로그램인 '18명의 산타를 찾아라'는 평소 선물을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선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족과 연인, 친구 할 것 없이 사전신청을 통해 18명의 산타를 모집, 소중한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한다.

이들 프로그램의 참가 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18명의 산타를 찾아라'는 내달 10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된 신청자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총 상금은 500만원으로, 모든 출전팀에 상금이 주어지며, 이 역시 내달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산타축제는 지난 해 부족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보완, 한층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산타플레이시프 퍼레이드와 마술 및 버블공연, 산타왕말야, 선정된 신청자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하

를 제공하며, 테마파크 잔디언덕에서 잔디밭에도 탈 수 있으며, 종이 모형 건축 등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지난 가을에는 임실N 치즈축제를 즐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을 찾았다면, 겨울에는 산타축제를 통해 겨울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도록 하겠다"며 "올해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연인, 아이들과 함께 축제장에서 많이들 오셔서 즐겁고 멋진 겨울날의 추억을 듬뿍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대한민국소비자대상 3년연속 수상

순창군이 3년 연속 2018 대한민국소비자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난 27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과 소비자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최고 행정부'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황숙주 순창군수가 직접 수상해 영광적인 자리를 함께 했다. 총 16개 분야의 시상이 이뤄진 이날 시상식에는 전국의 광공서, 민간기업 등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소통의 장이 되기도 했다.

순창군이 수상하게 된 주요인은 ▲천원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경로당 급식도우미 시행, ▲한계출산율 전국 4위(2년 연속 도내 1위), ▲순창읍 경천변 LED 야간 경관 조명 설치, ▲국가 균형발전 사업 우수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 등이다.

소비자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황숙주 군수는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을 해의 최고 행정부 3년 연속 영예를



인아 기쁘다"면서 "군정의 3대 비전인 예산 5000억원, 관광객 500만명, 인구 4만 달성을 실현해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순창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 신평탄

순창군이 순창읍 사회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28일 순창읍사무소에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를 위해 김중국 순창읍사회단체협의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1년 착수를 목표로 최대 5개년에

걸쳐 농촌중심지 기능 확충과 배후마을로까지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대하며 최소 150억원부터 최대 240억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군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의 사업참여 유도, 주민의 역할 등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유형과 사례를 들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사업의 중요성과 계획 등 전반

적인 설명을 마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진행되면 순창읍 시가지가 획기적으로 변모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인근 면까지 그 개발효과가 미칠 것"이라며 사업선정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군 관계자는 "공모당선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다양한 분야의 주민 참여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전문가 자문 등 사업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는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스마트쉼터 클래스를 운영한다

## 스마트쉼터 클래스 운영

### 신체적·정서적 발달·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대상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의약 스마트쉼터 클래스를 오는 12월 14일까지 예천 지역아동센터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 특성상 왕성한 호기심, 충동적 성향, 약한 자제력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쉬우며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가 어려워 학습장애, 대인관계장애, 수면장애 등에 문제발생이 생길 수 있어 정확한 인지를 통한 사용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학생들의 목 상태를 측정해 일자목과 거북목 교정 및 예방을 위해 한의사가 직접 이침과 테이핑요법 등 한방처치를 시행하고, 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는 기공체조 운동방법과 심신을 단련해 학생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공익수강생과장은 "청소년기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을 위해 힐링카페를 설치했다

### 남원소방서, '힐링카페' 개설

남원소방서는 민선7기 도정지표 중의 하나인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청사에 '힐링카페'를 설치해 오는 29일 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힐링카페는 남원소방서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의 편의와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청사 1층에 설치했으며, 이곳에서는 마음의 휴식을 위한

간편 도시와 음료가 비치되어 있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화의 장소로 활용될 계획이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힐링카페를 통해 시민과 소방공무원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시민들의 믿음직한 안전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시, 청년정책

####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회

남원시가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년복지향상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용역을 기용하고 있다.

최근 열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에는 김동규 부시장을 비롯해 공중체육센터, 청년협의체 의원들과 용역사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으며, 남원시 청년현황과 실태 분석, 타 지자체 청년정책 사례, 청년정책 비전 및 전략 등과 남원시 청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동시에 보완 사항 등에 대한 논의했다.

지역 청년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남원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동규 남원부시장은 "청년들은 남원의 미래이러면서,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남원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무주국유림관리소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협약

임실군은 27일 임실군청에서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업무협약(MOU)을 두 번째로 체결했다.

군과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15년 11월 2일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후 2차 업무협약을 맺었다.

첫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심한 결과, 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재선충병 감염목이 감소 추세로 접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기술과 인력, 장비를 상호 지원하는 등 강력한 예방·방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서는 임실지역 소나무림에 대해 국·사유림 구분없이 무주국유림관리소가 강진·청동면 지역을, 그 외 지역은 임실군이 맡아 예방과 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물론 산림분야 전반에 걸쳐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